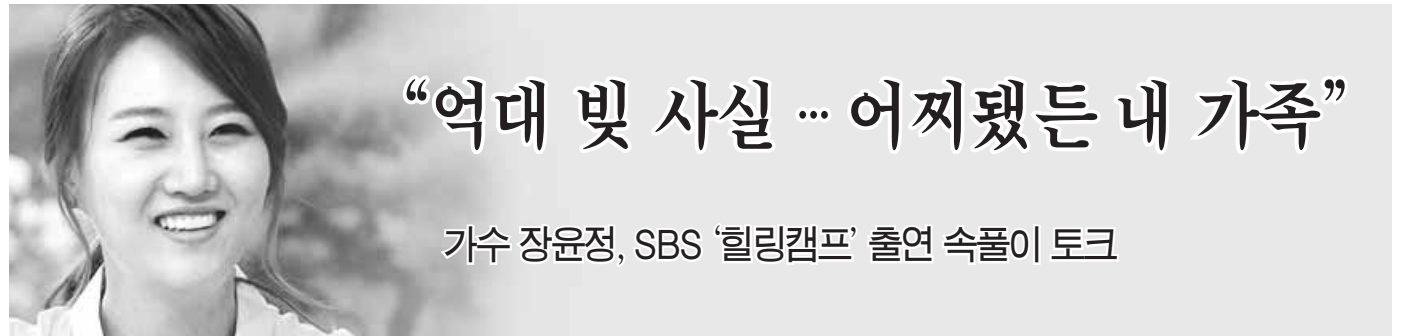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00 다섯 남자의 외!머니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오월특집 앙코르 <인연 3부>	30 아침연속극 <당신의 여자>
9 00 논술전문 세상보기 황호택의 눈을 떠요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삼성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신문으로 보는 세상	00 무엇이트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40 일일드라마 <웃나이 주외보>(재)
11 0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00 클래식 오디세이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천명>(재)	00 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똑딱>(재)	20 SBS생활경제 40 KBC생활뉴스
12 20 뉴스와이드 1~2부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 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 할 때>(재)	3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1 00 KBS 걸작선 <적도의 남자>(재)				30 피우자 민들레(재)
2 30 길게까지 가보자(재)	00 KBS뉴스 10 문화 책갈피(재)	10 퀴즈쇼 사총사(재)	30 공감 특별한 세상 스페셜	00 SBS뉴스 10 문화가계(재)
3 40 이연경의 직언직설	00 당신이 바꾸는 세상(재) 10 시사기획 창(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5 후스토 잃어버린 숲(재)	00 MBC 3시 뉴스 10 외우 신나는 세계여행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재)
4 50 김광현의 텃밭평평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킹 특선 <갈매기 도시-부산>	00 엘리먼트 헌터 30 TV유치원	00 뽀뽀보 아이조아 30 안녕 토토비	00 꿈의보석 프리즘스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못말리는 라비와 비트파티 (재) 15 뽀뿌야 놀자(재) 30 오아시스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남색와생활 3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00 뉴스특보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신 1~2부	20 생생TV 전국을 달린다	05 전국TOP10 가요쇼(재)
7 1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필통	45 일일시트콤 <일말의 순정>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웃나이 주외보>
8 20 박종진의 쾌도난마	25 일일연속극 <자성이면 강천>	20 아구가 좋다 50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구암이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연예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히든 챔피언		00 수목 드라마 <천명>	00 수목미니시리즈 <남자가 사랑 할 때>	00 드라마 스페셜 <내 연애의 모든 것>
11 00 웰컴 투 돈월드(재)	30 KBS 뉴스라인	20 이야기쇼 두드림	20 활금어장 라디오스타	20 짝
12 10 명랑해결단(재) ①:20 로또다큐 <취흥>(재)	00 KBS 글로벌 24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00 KBS 뉴스 10 KBS 걸작 다큐(재) <있다 해동청 보리매> 50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30 스포츠 다큐<승부> 50 세상의 모든 다큐 <저장 강박증>	40 MBC뉴스24 ①:00 스포츠 다이어리 10 마을이야기 울창울창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①:10 테마스페셜



“억대 빛 사실 ... 어찌됐든 내 가족”

가수 장윤정, SBS ‘힐링캠프’ 출연 속풀이 토크

가수 장윤정(33)이 21일 전파를 탄 SBS TV 토크쇼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억대 빛, 부모님의 이혼, 도경완 아내운서와의 결혼 등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전했다.

장윤정은 억대 빛머리에 올라앉았다는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실”이라며 “부모님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내 명의로 된 것들을 정리하다가 은행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빛을 알게 됐다”고 털어놴다.

평소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누리는 그녀에게 최근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가족들이 미안해할까 봐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중간 중간 확인 한 번 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번지지도 몰랐다”고 고백했다.

또 “어려운 시절, ‘생계형 이산가족’으로 헤어져 살 때가 있었다”며 “내가 돈을 벌면서 가족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 관리도 맡겼다”고 부연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그 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만큼 빛을 확인했을 때 받은 충격도 컸다.

장윤정은 “은행에서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라서 정말 많이 울었다”며 “돈이 없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빛까지는 생각 못했다. 놀라서 눈물이 났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어찌 됐든 내가 맡긴 일이고, 내 가족”이라며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다시 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리셋(Reset)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속이 상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겠다”며 “이러다 병에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아프다. 감정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짐작케 했다.

현재 장윤정의 부모님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그의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그는 “총체적 난국”이

라고 표현했다.

장윤정은 그러나 “금전적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이 문제로 이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고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이를 정리하던 중에 금전적 상태를 알게 된 것”이라고 돈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항간의 소문은 부정한 듯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오는 6월 화축을 밝히는 예비 신랑 도경완 KBS 아나운서와의 이야기도 전파를 탔다.

장윤정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식으로 고백하기 전 도경완 아나운서에게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이를 들은 도경완 아나운서는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함께 울었다.

그는 “도경완이 밤마다 전화로 책을 읽어줬다. 전부 사랑 이야기더라”며 “어느 순간 도경완에게 물든 것 같다”고 마음을 열게 된 과정을 전했다.

장윤정과 도경완 아나운서는 지난 8일 혼인 신고를 먼저 마쳤다. 결혼식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예능인의 롤모델 되는게 목표”

배우 봉태규, SBS ‘화신’ 예능 MC 첫 도전

“‘화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다른 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배우 활동과는 또 다르게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다른 분야에 있다가 나중에 예능을 하는 분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SBS TV 화요 토크쇼 ‘화신 - 마음을 지배하는 자’의 MC로 합류, 처음으로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에 도전하는 배우 봉태규(32)의 바람이다.

지난 14일 이 프로그램에 최강희·박정철·서인국 등과 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21일 방송분부터 전일 윤종신의 바통을 이어 MC 자리에 앉는다.

21일 오후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봉태규는 “지난주만 해도 게스트였었는데, 1주일 만에 MC석에 앉는 느낌이 묘했다”며 “긴장은 됐지만, 즐거움이 컸다”고 첫 녹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00년 영화 ‘눈물’로 데뷔한 그는 주로 스크린에서 대중을 만났다.

최근 개봉한 영화 ‘미나 문방구’와 지난해 KBS 2TV 단막극 ‘격정마세오, 귀신입니다’ 이전에는 2년 넘는 공백기를 가졌다. 그만큼 예능 도전에 대한 주위의 우려도 있었을 터

다.

“공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절반, 격정해 주시는 분이 절반이었죠.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같은 ‘영역’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배우를 할 때 예능의 이미지가 각인되면 어쩌나하고요.” 그는 “그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며 “예전 시트콤 했을 때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한 번 경험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초연하게 말했다.

“저는 술을 잘 못해요. 남자이지만, 차를 마시면서 커피숍에서 5시간 넘게 있고, 활동을 쉬는 동안 수심은 없지만, 호수같이 넓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토크쇼 MC로서 자신감을 드러낸 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남은 시간에 게스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것. 활동을 재개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남은 시간이 많아서 가능하다고 느꼈을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온다고 하면, 제 나름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취재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부는 방

송 당일 게스트를 통해 직접 확인합니다.” (웃음)

지난 14일 ‘화신’의 시청률은 5.3%(닐슨 코리아.전국 기준). 이를 끌어올려야 하는 MC로서는 부담스러운 법도 하지만, 그는 “이번 주 0.1%만 올라도 내가 투입돼서 그리웠다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장난스레 심경을 전했다.

봉태규는 “그 결과 또한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혹은 패션 관련 토크 버라이어티도 맡고 싶다는 욕망을 내비쳤다.패션 트렌드를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는 희망도 덧붙였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련해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지금은 옷 관련이겠죠. 조금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인을 통해 패션 트렌드를 배우기도 했어요.”

방송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20분. /연합뉴스

EBS

06:00 건강이 아침	09:40 깨미	14:30 친척폭풍 처갓터	18:45 정글북
06:10 한국기행	09:50 지구를 지켜라	15:00 꼬마기사 마미크	19:00 EBS 뉴스
06:30 성공! 인생 후반전	10:10 세계테마기행	15:10 풍광짜짜 라라	19:20 EBS 진중기획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비투와 친구들	19:25 지식채널e
07:15 비투와 친구들	<신호선의 누구나 반발민한 레시피 -달걀 김치국과 북어 비빔밥>	15:45 미야의 모험	19:30 달리자오
07:30 마이의 모험		16:00 덩덩덩 유치원 1~2(재)	20:20 화제의 인물
07:45 부릉! 부릉! 부루미즈	11:20 부소	16:20 피들리움	20:50 세계테마기행(중국 원년생)
08:00 덩덩덩 유치원 1~2	<비문자의 위험성과 예방법>	16:30 꼬마버스 타요(재)	21:30 한국기행(재주)
08:20 시계마을 타기톡	12:00 EBS 정오 뉴스	16:45 출구는 꿈 공야재	21:50 SBS 다큐프라임
08:35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다큐프라임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치매를 부탁해>
08:50 출구는 꿈 공야	<아시아 음식의 비밀, 장>	17:10 시계마을 타기톡(재)	22:45 극한직업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3:05 영국 지성과의 대화	17:25 부릉! 부릉! 부루미즈(재)	23:15 다큐 10+
09:15 푸비푸비 눈보리	14:00 지식채널e	17:4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4	24:05 한국영화특선
09:30 피들리움	14:05 영어유치원 요! 기가기바	18:30 곤	<굿모닝 프레지던트>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기본과 특별한	<한국사> 11:40 " <화환> 11	07:00 공민공경사 시현대비 강좌	15:20 초등 내공 남남 <사회 3-1>
00:50 내신 6급	<수학(하)> 12:30 박복의 이수로 만나는 경제	07:30 EBS 생생영어	15:50 " <사회 4-1>
01:40 포스	<문학(하)> 13:00 탐스런 <생명과화학> 11	08:00 물류관리사 시험 대비 강좌	16:20 " <사회 5-1>
02:30 "	<문학(하)> 14:00 " <지구과학 II>	08:30 인터넷 윤리 자서시현대비강좌	16:40 " <사회 6-1>
03:20 "	<적분과 통계> 15:00 인터넷수능 <문학(A)>	09:10 TV중학	<국어(하)> 17:20 초등개념잡기 <국어>
04:10 "	<기하와 벡터> 16:00 기술플러스 <수학(하)>	09:50 "	<수학(하)> 18:00 중학 개념잡기 <수학>
05:00 "	<수학(하)> 17:00 인터넷수능 <듣기(B)>	10:30 중학개념 끝잡기	<한문> 18:40 아이기 한국사
05:50 탐스런	<물리 I> 18:00 EBS 수능특강 <국어 A형>	11:10 TV 중학	<도덕(하)> 19:20 세계의 이미지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19:00 " <국어 B형>	11:50 TV 중학 2학년	<수학(하)> 20:00 원초보 중학영어
<영어독해의 기본(1)>	20:00 " <영어 A형>	12:30 "	<역사(상)> 21:20 초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Basic Grammar>	21:00 " <영어 B형>	13:10 TV 중학 3학년	<통합3> 21:40 통합심공 <사회(하)>
08:20 탐스런	<화학 I> 22:00 " <생명과화학 I>	13:50 변별한영어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역사(하-1)>
09:10 "	<생명과화학 I> 23:00 전공특성 유형분석 영어	14:10 신비물 실험실	22:40 TV 중학 3학년 <수학(하-1)>
10:00 "	<지구과학 I> 23:50 지식채널e	14:30 골골 초등국어 문법(1)(2)	23:20 " <역사(하)>
10:50 "	<물리 II> 23:55 배움나머사	15:10 사회가 속삭!	24:00 실험관찰 비법 노트 5-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운세	운세	운세	운세
36년생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48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60년생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비겠다. 72년생 예비 분의 확보가 꼭 필요 하느니라. 84년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을 알자. 행운의 숫자 : 81, 16	42년생 지난날의 실적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 힘이 된다. 54년생 녹슬지 않도록 늘 갈고 닦아야겠다. 66년생 공동으로 진행했을 때 능률이 극대화될 것이니라. 78년생 포용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86	43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55년생 부수적인 요소들까지 신경 쓰는 것이 좋다. 67년생 당연치에 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79년생 인연으로 인한 폐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4, 79	44년생 다투어서 이긴다 하더라도 별짓이 없느니라. 56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효과하지 않는다. 68년생 상대의 숨은 덕으로 인해 크게 감동받겠다. 80년생 밤삼한다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61
37년생 가치와 의미 있는 시간을 갖자. 49년생 넓게 퍼져 있는 상태이다. 61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하라. 73년생 느낌의 미학을 인식해 보는 것도 좋다. 85년생 훨씬 앞당겨져서 처리되겠다. 행운의 숫자 : 30, 58	45년생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겠다. 57년생 소중한 사람이 내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다. 69년생 완전하지 않은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니라. 81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 복이 들뜬 들어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20	44년생 다투어서 이긴다 하더라도 별짓이 없느니라. 56년생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오효과하지 않는다. 68년생 상대의 숨은 덕으로 인해 크게 감동받겠다. 80년생 밤삼한다면 순식간에 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61	46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나 기대해도 좋다. 58년생 새롭기는 하지만 기여도가 신통치 않다. 70년생 불협화음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82년생 한 번 시작되면 술술 풀려나올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4, 14
38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도 있다. 50년생 진행하기에 매우 수월한 상황이다. 62년생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74년생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06	47년생 작은 것이 인연이 되어 큰 계기를 이루리라. 59년생 한 번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1년생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다. 83년생 수고로움에 비해 결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28, 65	45년생 문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겠다. 57년생 소중한 사람이 내 정보를 소개받을 수 있다. 69년생 완전하지 않은 지식은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니라. 81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 복이 들뜬 들어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4, 20	47년생 작은 것이 인연이 되어 큰 계기를 이루리라. 59년생 한 번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1년생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다. 83년생 수고로움에 비해 결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28, 65
39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겠다. 51년생 흙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격이로다. 63년생 굳이 남의 이목을 의식할 필요는 없느니라. 75년생 한계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10, 48	48년생 노력이 성과는 정비례하는 법이다. 52년생 사소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황이다.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6년생 수고는 하되 동참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7, 43	46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나 기대해도 좋다. 58년생 새롭기는 하지만 기여도가 신통치 않다. 70년생 불협화음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겠다. 82년생 한 번 시작되면 술술 풀려나올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4, 14	47년생 작은 것이 인연이 되어 큰 계기를 이루리라. 59년생 한 번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71년생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다. 83년생 수고로움에 비해 결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행운의 숫자 : 28, 65
40년생 노력과 성과는 정비례하는 법이다. 52년생 사소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황이다.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6년생 수고는 하되 동참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7, 43	41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53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65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지겠다. 77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크다. 행운의 숫자 : 82, 23	48년생 노력이 성과는 정비례하는 법이다. 52년생 사소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상황이다. 64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76년생 수고는 하되 동참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7, 43	49년생 속단은 금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할 일이다. 53년생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65년생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지겠다. 77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크다. 행운의 숫자 : 82, 2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선”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호흡 척척’ 은빛 멀치를 털어라

극한직업(EBS TV 밤 10시 45분) = 군무를 추는 듯한 어부들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은빛 멀치를 털어내는 곳. 한해 어획량 3000여톤. 전국 최대의 멀치 산지 부산 기장군이 다.

먼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수온이 따뜻해지는 3월 초부터 산란을 위해 대방랑 연안으로 올라온 멀치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멀치잡이 배 선원들. 매일 이른 아침 출항해 늦은 밤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 낮 동안의 고된 항해와 멀치잡이로 온몸이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4~5시간의 탈망 작업. 24시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조업 현장에서 거친 바다에 맞서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 인고의 시간 속에 고된 노동을 감내하면서도 은빛 멀치 때로 봄을 맞이하는 현장을 찾아가 본다.

‘동시다중 분자진단’ 씨젠의 도전

히든 챔피언(KBS1 TV 밤 10시 50분) =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되고 있는 오늘날, 사람의 타액, 혈액 등에서 추출한 유전자 정보로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분자진단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수수의 글로벌 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과점상태의 분자진단 시장에 한국의 작은 기업, 씨젠이 도전장을 냈다. 한 번에 최대 20여 가지의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는 혁신기술인 ‘동시다중 분자진단’으로 전 세계 56개 국가의 국·공립 병원, 주요 사립병원 및 대형검사센터에 제품공급을 하고 있는 씨젠. 직원의 대부분을 석·박사 출신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대기업에서도 보기 힘든 규모와 학술팀을 운영하는 등 고객에 요구하는 기술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씨젠의 경영철학을 들여본다.

배우 4인방의 웃음 폭탄

라디오 스타(MBC TV 밤 11시 20분) = 인기 가수에서 신인 영화배우로 돌아온 자유로운 영혼 이홍기, 박원숙씨 뒷목 잡는 막장 머니러 대세녀 심이영, 하이킥으로 뜨나 싶었는데 여전히 낯선 이름 백진희, 영화 ‘다 짜와라’ 역으로 살짝 뜨다가 만 잊혀진 코믹 배우 임원희. 인지도는 미지근하지만, 예능감은 핫한 ‘4인4색’ 맛있는 토크가 진행된다.

동갑내기 백진희와 아용다용 핑크빛(?) 분위기를 내뿜는, 개구쟁이 이홍기가 녹화중 씨엔블루 멤버의 비밀을 폭로한다.

무명시절은 길었지만, 존재감은 최고인 심이영이 직접 ‘전도연의 도플갱어’라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의 진실을 이야기한다.

환상적인 팀워크로, 톨 톨 웃음이 터트리는데 예능 체질, 4인방을 만나본다.